한라시론

이 영 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습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 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 한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습지를 간 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해역까 주도에 분포하는 대표적 습지인 오 지 포함하다.

양, 오염물질을 잔류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업과 농업의 중요한 생산 저어새의 최대 월동지이기도 하다. 를 따라 만들어진 올레길 바로 옆은 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당부한다.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 나선 오조리 주민들

생태관광과 연계한 휴양·여가와 기 후변화에 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의 높은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에는 많은 수의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대상 습 지는 내륙습지 322곳, 연안습지 21곳 물을 머금은 습한 땅으로 표현되는 이다. 이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5곳으로 모두 내륙에 분포 있는 생태계 중 하나이다. 습지보 한다. 섬 지역이면서도 습지보호지 전법에서 습지의 정의는 담수, 기 역으로 지정된 연안습지는 단 한 곳 도 없다. 제주도 습지 보전관리 정책 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실상이다.

이 가운데 최근 서귀포시 오조리 마을 연안습지가 주목받고 있다. 제 조리 연안습지는 생태·경관적인 가 습지는 홍수를 완화하는 재해 예 지는 물론 지질학적으로도 보전가 방과 물의 저장 및 정화, 지하수 함 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천연기념 물과 멸종위기종 I급인 국제보호종

조리마을이 마을 연안습지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하려고 나선 이유도 대견하다. 마을 에서 습지 바로 건너에는 성산일출 봉이 우뚝 서 있고, 식산봉과 해안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겨울철에 는 수십 종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하 여 200여 종의 철새 수천여 마리가 이곳을 찾아 장관을 이룬다. 이처럼 오조리 연안습지는 성산일출봉과 어우러진 주변의 뛰어난 경관 포인 트로 알려지며 마을을 찾는 외지인 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제는 연안습지와 그 주변의 훼 손 행위도 잦아져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이 위협받게 됐다. 일례 로 갈대숲이던 습지를 매립해 타운 하우스 개발이 이뤄졌고, 연안습지

자원으로 인정받아 왔고, 최근에는 이곳을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된 오 카페와 숙박시설이 들어서기도 했 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마을의 환 경과 연안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 주민들이 마을 연안습지를 보호 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론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보호지역 지정이 단순 행 위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 여로 습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적 으로 활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 론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 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환경단체와 함께 제주도, 해양수산부에 뜻을 전 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토 론회를 개최하며 최근 농림부가 주 최하는 행복농촌만들기 경연의 경 관·환경 분야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이제 제주도가 나설 차례다. 주 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의 노력 에 화답하고, 그 결실을 위한 적극

뉴스-in

"맞춤형 정책으로 상장 기업 육성"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제

오 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워케이션 붐을 타고 제주로 이 준의 기업들이 오면 제주의 향

이어 도내 최초로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제주반도체를 언급하며, "이런 기업이 있기 때 문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연 구개발센터의 제주 이전이 진행

"비료 품질 검사 공개를"

○…최근 제주시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판매해온 비료 생산 업 체 대표 등이 제주도자치경찰단 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 강병삼 제주시장이 비료 품질 검사 내 용 외부 공개를 주문.

강 시장은 14일 각 국장들이 참석한 주간 간부회의에서 "불 량 비료 유통 사건으로 인한 농 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행정 조 토기업들과 윈윈하는 좋은 사례 지와 별개로 앞으로 비료 품질 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은 검사 결과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

한편 제주시는 매년 생산업체 에 대한 비료 성분 분석 등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3년 동안엔 매년 1건씩 위 반 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나 경 고 등 행정처분. 진선희기자

사설

눈덩이 적자 공공시설물, 이대론 안된다

설물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박물관과 기념관 등 공공시설물 의 적자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 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처럼 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면서 제주도가 결국 이들 시설에 대 해 매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 시설물은 모두 180개소에 달한 다.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운 영 적자는 2019년 591억원에서 2020년 63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 는 701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과 2년새 적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율적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도 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 는 우선 관광지와 교육시설 교통 의 적자가 말이 아니다. 어느 시 시설 등 7개분야 68개소를 대상 으로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적자 투성이다. 관광지를 비롯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해 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심히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적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시 설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 렇다. 한해에 발생하는 공공시 설물의 적자 규모가 700억원이 넘어서고 있잖은가. 물론 공공 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마냥 가선 안될 것 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 정으로 이같은 적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 도는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 가. 앞으로 민간위탁 등 효율적 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다각도

부동산 자산 편중… 도민 삶 '암울'하다

도민자산이 10년간 갑절 증가했 지만 부동산 중심이어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 동산 자산이 개발여파에 가격상 금융자산은 상당폭 감소해 국제 자유도시 제주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 산·금융 자산간 양극화가 더 심 화되지 않도록 중·장기 정책들 을 촘촘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

주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2021 2억8157만원보다 두 배 늘었다. 자산별로는 금융자산 8528만원 15%인 반면 부동산 중심 실물자 산은 4억8232만원으로 85%에 달 했다. 도민 자산이 10년전 금융 5255만원 18.7%, 실물 2억2902만 원 81%와 비교할 때 금융자산

감소, 실물자산 증가세가 크다. 작년 전국평균 자산비중 금융 22.5%, 실물 77.5%에 비해서도 '자산 양극화'가 심하다. 도민 승을 불러와 큰 폭 증가한 반면 가구가 지역의 숱한 발전상에도 소득증가를 못했고,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부동산 가격만 크 게 오른데 따른 결과다.

도민 자산이 실물자산으로 편 중되는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 실물자산 편중이 부동산없 는 도민들의 박탈감, 땀 흘려 일 통계청의 '2022 통계로 본 제 하는 노동가치 훼손, 빚 유무로 인한 부동산 보유자간 양극화 년 기준 가구 평균자산은 5억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야 한 6760만원을 기록, 10년전 2012년 다. 지역사회가 경제성장에 따 라 일정부분 실물자산 증가를 용인하더라도 예상을 넘는 금융 자산 감소엔 별도 대책을 내야 한다. 도민 삶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할수록 암울해지지 않게 실질적 소득향상을 깊이 고민할 때다.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

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

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

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 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

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

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

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편집국 25시

일단 넘긴 글



강 다 혜 정치부 기자 dhkang@ihalla.com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마감 일자가 본, 2000자를 넘길 때도 있다. 편집 눈에 들어왔다. 늘 소재가 고민이 다. 오늘은 무엇을 써야 할까, 써야 을 치고 일단 기사를 넘긴다. 할 것과 쓰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뉴스가 없다면 출 입 기관의 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 느껴질 때도 있다. 전화 한 통 하기 거나. 가까운 관계자를 만나거나.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극악이어서 그간 취재했던 목록을 뒤져 파고들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사안을 어도 발제 거리는 넉넉하다.

일단 기사 주제를 찾아내면 본격 내용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A부터 이니 C가 궁금하고, D도 담아내야 할 것 같다. 머릿속 마인드맵이 꼬

무한 굴레가 이어지는 것이다.

어느 지점에서 만족해 흘려보내 기가 쉽지 않다. 취재할 땐 '2시간 만 더 있었다면, 통화 몇 번 더 할 수 있다면', 기사를 쓸 땐 '20분만 더 다듬을 수 있다면' 하고 욕심이 난다. 기사에는 마감 시간과 글자 수라는 제약이 있는데, 1000자를 쓰겠다고 약속하고선 1200자는 기 자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지만 철벽

한편으로는 만족할 줄 아는 것과 안주하는 것 사이 경계가 모호하게 취재해야 하는 경우건, 더 꼼꼼히 취재했어야 할 지점에서 멈추고 대 강 마감한 날에는 그 지점에 대한 취재하다 보니 B가 보인다. B가 보 설명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반드시 나타난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한 발 나아가야 하는지 내 안의 산 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커지는 신령은 별로 신통치가 않나 보다.

오 지사, 지원 의지 밝혀

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 린 '제주 상장기업 육성 지원포 럼'에서 "상장 기업 육성을 위 해 제주지역 상황에 맞는 수준 별·맞춤형 육성 지원 정책을 제 공할 계획"이라고 언급.

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장 수 지원 의지를 표명.

되는 것"이라고 첨언. 고대로기자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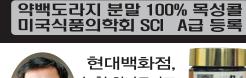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지를 못찾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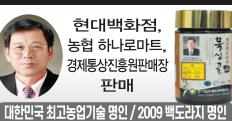
교지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전문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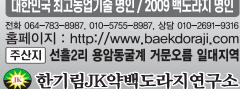
겜 Oł 방수전문건설업

7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복비: 50,000원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전화 010-7301-7737

卫

임태식(현대자동차 제주하귀대리점 대표) 어머니 신천강씨 명선(향년 92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14일 12시 2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2년 12월 15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 오전 6시 2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양지공원→호국원

남편임원부曲

아 들임태윤ᇓ 며느리정숙인 태 식 장은경 딸 임희정 사위박성덕 을화 강승진 손 임혜성 외 손 박상현 유영 상용 유진 강은지

※ 연락처:임태식 010-3691-8208 강승진 010-3639-6391 장은경 010-2490-0604

서 윤

감사의 말씀

사단법인 붇다클럽 천지회 양수호 거사 (향년 5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 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 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 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배 우 자 박 명 헌 양 윤 지 양 현 지

🥨 사단법인 붇다클럽 총회장 양창수 외 회원 일동 합장

상속한정승인공고

명 : 망 김영옥(1934. 11. 7. 생) •최후주소 : 제주시 흥운3길 14-1(용담이동)

상기지는 2022년 9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 년 11월 30일 제주지방법원 2022느단5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 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제주시 중앙로24길 21, 302호 (삼도이동, 대지빌라) 2022년 12월 1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형 록

농공단지 토지 구합니다



1,000평 이상 (시설물 있어도 무관함) 제주도 내의 모든

농공단지

연락처 064-746-7100